

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이익 57% '깡충'... 업황 회복 기대감

1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5514조 추정
한국투자 3874억, 업계 최대실적
대체거래소 출범, IB 업황개선 등
증권사들 수익구조 탄탄해진 결과

국내 주요 증권사 5곳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들어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다 대체거래소 출범, 투자은행(IB)부문 업황 개선, 최근 진행된 증권사들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수익 구조가 탄탄해진 결과다.

10일 금융 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투자,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대 증권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55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분기(9868억원) 대비 57.21% 증가한 규모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은 자회사로 둔 한국금융투자가 387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삼성



ChatGPT로 생성한 증권사 수익 상승 이미지.

증권(3094억원), 키움증권(2949억원), 미래에셋증권(2907억원), NH투자증권(2689억원) 순으로, 대부분 2000억원을 웃도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식시장 강세와 국내 투자심리 회복이 증권사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20조원을 밑돌았던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2800억원으로 한 달 전(16조5567억원) 대비 28% 증가했다.

이같은 거래대금 증가는 대체거래소 출범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지고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거래

대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은 10개에 불과하지만, 이달 말부터 매주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800개 종목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별로 다른 최선집행기준과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을 선점하는 증권사의 유의미한 수수료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며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인해 증권사의 연간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중금리 하락세도 증권사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국고채 1년물, 3년물, 5년물 금리는 각각 지난해 4분기 평균 대비 16bp(1bp=0.01%포인트), 14bp, 13bp 하락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국채금리 및 여전채 금리 하락과 국채와의 스프레드 축소를 감안할 때 증권사들의 1분기 채권평가이익은 우수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환전 업무 허가 및 종합

투자계좌(IMA) 재정비도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IM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가 정비되면 증권사의 자산관리 부문 수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으로부터 예약받은 자금을 통합 운용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 보장 상품이다. 기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2016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IMA 사업을 허용했으나, 현재까지 인가받은 증권사는 없다.

강 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기대된다"며 "수신기반 확대가 기대되는 발행어음 및 IMA 추가 인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증권 업황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회계감사 다시 공인회계사 전담... "투명성 확보, 환영"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세무사 참여 배제 조례개정안 통과
간이한 검사→엄격한 회계감사로

서울시의회가 6700억원규모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서 세무사 참여를 다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은 22조원 규모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AP)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데 대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기존의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의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업비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회계감사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2년 4월 제10대 서울시의회는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개정안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당시 "지방자

치법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가 감사 수준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학계, 회계업계, 시민사회 및 언론 등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회계검증이 간소화될 경우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조례 개정

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비영리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간이 검사' 방식의 민간위탁사업 회계검증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2년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개정이 추진돼 왔으나,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치로 인해 엄격한 회계감사 방식으로의 복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세무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허정훈 기자 zelkova@

김동준 키움PE대표 키움증권 이사회 합류 경영승계 작업 본격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준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키움증권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2018~2021년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이현 키움증권 부회장도 함께 사내이사 후보에 올랐다.

현재 키움PE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김 대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키움증권에서는 별다른 직책 없이 비상근 사내이사로 이사회에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의 키움증권 내 담당 업무는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된 후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키움증권은 키움PE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 지난달 키움증권은 한국정보인증이 보유한 400만주(40%)에 이어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던 200만주(20%)를 취득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김 대표의 경영 승계가 본격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몬타비스타 고등학교와 남가주대(USC)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코넬대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뒤 다우키움그룹 내 계열사인 사람인,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등을 거쳤다. 그룹 내에서 미국 전문가로 꼽히는 김 대표가 키움증권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연내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키움증권의 미국 법인 신규 설립 또는 인수·합병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관희 기자

중국·홍콩 증시 반등... 올해 ETF 수익률 1~6위 中 상품

차이나항생테크레버리지(합성 H)
수익률 평균치의 2배 넘는 66.89%
"딥시크 부상에 기술주 재평가 이뤄져"

기술주 강세 속에 중국·홍콩 증시는 반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올해 수익률 상위권 대부분도 중국 투자 관련 상품이 차지했다. 수익률 1위부터 6위까지 중국에 투자하는 ETF로 줄을 세운 모습이다.

'TIGER 차이나항생테크레버리지(합성 H)'의 올해 들어 이날까지 수익률은 66.89%로 압도적이다.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평균 30%대

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성과다. 해당 상품은 홍콩에 상장된 테크기업 30개로 구성된 홍콩 항생테크지수(HSTECH)의 상승률을 2배로 추종한다.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셈이다.

올해 중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성비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홍콩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의 대표 주가지수인 항생지수는 올해 들어 7일까지 20.79% 상승했으며, 중국 우량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도 22.27% 올랐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딥시크 부상에 기술주 재평가가 이뤄지면

서 '중국판 M7(매그니피센트7)'의 주가는 '미국 M7'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며 "중국기업의 빠른 AI 응용 확산으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축소해 가는 과정들이 중국 M7의 중장기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중국판 M7은 2023년부터 항생테크 지수를 계속 아웃퍼폼(시장 평균 수익률 상회)했다는 부연이다.

'중국의 나스닥'으로 꼽히는 항생테크 지수는 중국 혁신 성장 산업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30개로 구성된 지수다.

중국판 M7으로 꼽히는 샤오미, 알리바바, 메이투안, 비야디(BYD) 등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35.12% 급등했다. 같은 기간



ChatGPT로 생성한 ETF 이미지.

미국 나스닥 지수가 5.77% 하락한 것과 상반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올해 수익률도 평균 30%로 높게 나타났다. ▲'ACE 차이나항생테크' 31.96% ▲'RISE 차이나항생테크' 29.68% ▲'TIGER 차이나항생테크' 28.82% ▲'KODEX 차이나항생테크' 27.79% 등이다. /신하은 기자 godhe@